



HOME 문화 문화일반

진해구 여좌동, 마을학교 운영

공간재생·경제 활성화 기대

2018년 03월 11일 (일) | /김소현기자 | ksh@gnynews.co.kr

창원시 진해구 여좌동(동장 서호관)는 지난 9일부터 블라썸 여좌 프로젝트의 하나로 여좌동 계층 공감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.

계층 공감 마을학교 프로그램은 '블라썸 여좌' 도시재생사업의 프로젝트 중 하나다.

모집 프로그램은 두뇌를 두드리는 미술반, 골목프로리스트 양성반, 마을기업 준비반, 계층 공감 노인대학, 여좌 바리스타 양성반으로 구성됐다.

수강생 모집은 지난 9일부터 오는 23일까지이며, 전액 무료로 여좌동 주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.

또한 프로그램을 수료한 마을 주민에게는 마을기업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.

서호관 여좌동장은 "프로그램 운영으로 침체된 여좌동 주민들에게 생기를 불어넣고, 우리 지역의 공간 재생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"이라며, "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"고 말했다.

/김소현기자 ksh@gnynews.co.kr

<저작권자 © 경남연합일보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>

[인쇄하기](#)